

□ 러시아 유통동향

○ 광활한 영토로 인해 넓은 지역에 산재된 인구로 인해 낙후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

- 러시아의 수입 농산물은 처음에는 각 도시의 대형농산물 도매판매회사로 수입된 후, 시내에 분산되어 있는 재래시장과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 할인판매점과 프로덕트 등의 일반 상점으로 공급되어 유통되고 있음

- 중간 유통단계를 장악하고 있는 재래 시장과 대형할인판매점과 일반 가게 프로덕트는 대형 수입업자들에게 물건을 공급 받거나 구매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

- 운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, 특히 유제품, 빵, 수프, 조미료, 드레싱 제품의 유통구조가 가장 취약

- 러시아의 식품유통시장 구조는 최근 10년간 다수의 현대식 식품유통업체들이 Moscow와 St. Petersburg 등의 주요 도시에 위치하게 되는 등, 주요한 변화를 겪음

- 주요 식품유통채널은 국내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임. Moscow의 주요 유통업체는 X5 Retail Group, Dixi, Kopeika, S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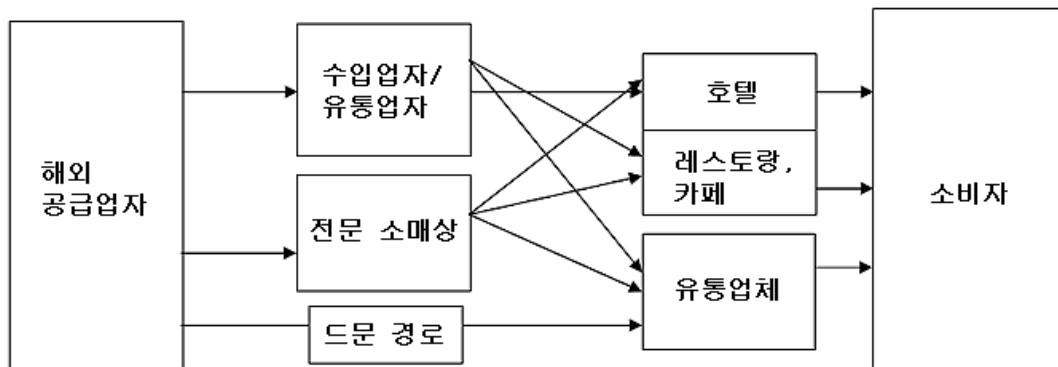
moi Kontinent 등. St. Petersburg의 주요 유통업체는 X5 Retail Group, Lenta, O'Key임

<러시아의 식품 유통>

분류	세부 분류	내용	점유율
----	-------	----	-----

재래식 유통시장	키오스크	노점상, 한정된 식품군 (30종류 이하) 판매	11.55
	노천시장	일반 노천시장	13.7%
현대식 유통시장	슈퍼마켓 (대형마트, 하이퍼마켓 포함)	400~2500㎡의 매장규모. 70% 이상이 식품과 일용품으로 구성	23.3%
	할인점	300~900㎡의 매장규모. 1000~1400종류 정도의 상품 구비, 대중적 상품 취급, 가격을 낮게 책정	14.1%
	편의점	300㎡ 규모, 주택가나 주유소에 위치 24시간 영업하며 키오스크(kiosks) 역할을 대체함	37.4%

< 러시아 식품 유통채널 도표화 >



출처: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